

제2회 신인 춤 제전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일시 / 1996년 3월 14일(목) · 15일(금) 하오 7시

장소 / 태양아트홀 (시청 뒷편 · 463-3356)

주최 / 부산매일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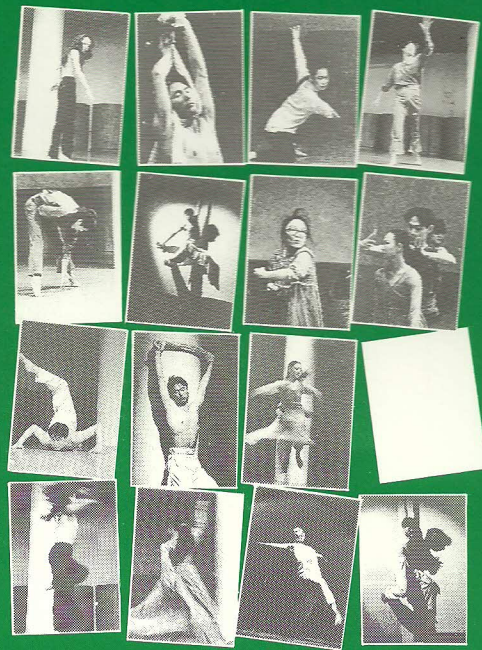
주관 / 부산민족미학연구소 · 가람문화예술센터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을 열면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은 실험적이고 작가정신이 투철한 새내기 춤꾼들의 등용문입니다.

오늘 이 춤판에는 올해 대학을 졸업한 춤 전공자들 가운데 개성이 뚜렷하여 앞으로 자신의 춤세계를 의욕적으로 구축해 나갈 새내기들의 작품과 첫 번째 신인 춤제전에 참가한 이들이 지난 한해 동안 꾸준히 연마하여 춤의 세계가 더욱 깊어진 작품들이 나란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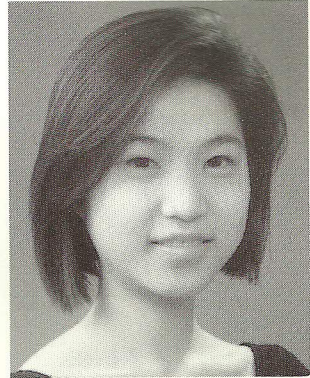
올해에도 이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이 부산 춤판의 앞날에 밝은 전망을 기약하고 대학춤 교육현장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산매일신문사와 기림문화예술센터 그리고 태양아트홀의 성원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올해에도 춤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고대합니다.

1996년 3월 14일
부산민족미학연구소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제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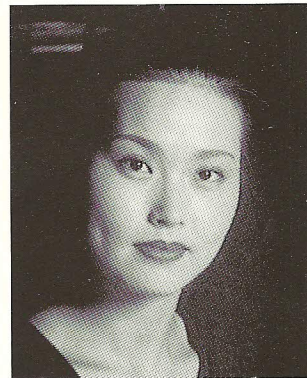


못다한 고백

안무·출연 : 이세진 (현대춤 / 경성대)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결코 사랑하지 못했다.

말을 듣지 않는 몸뚱이만을 원망하며 닫힌 문앞에서 한없이 기다릴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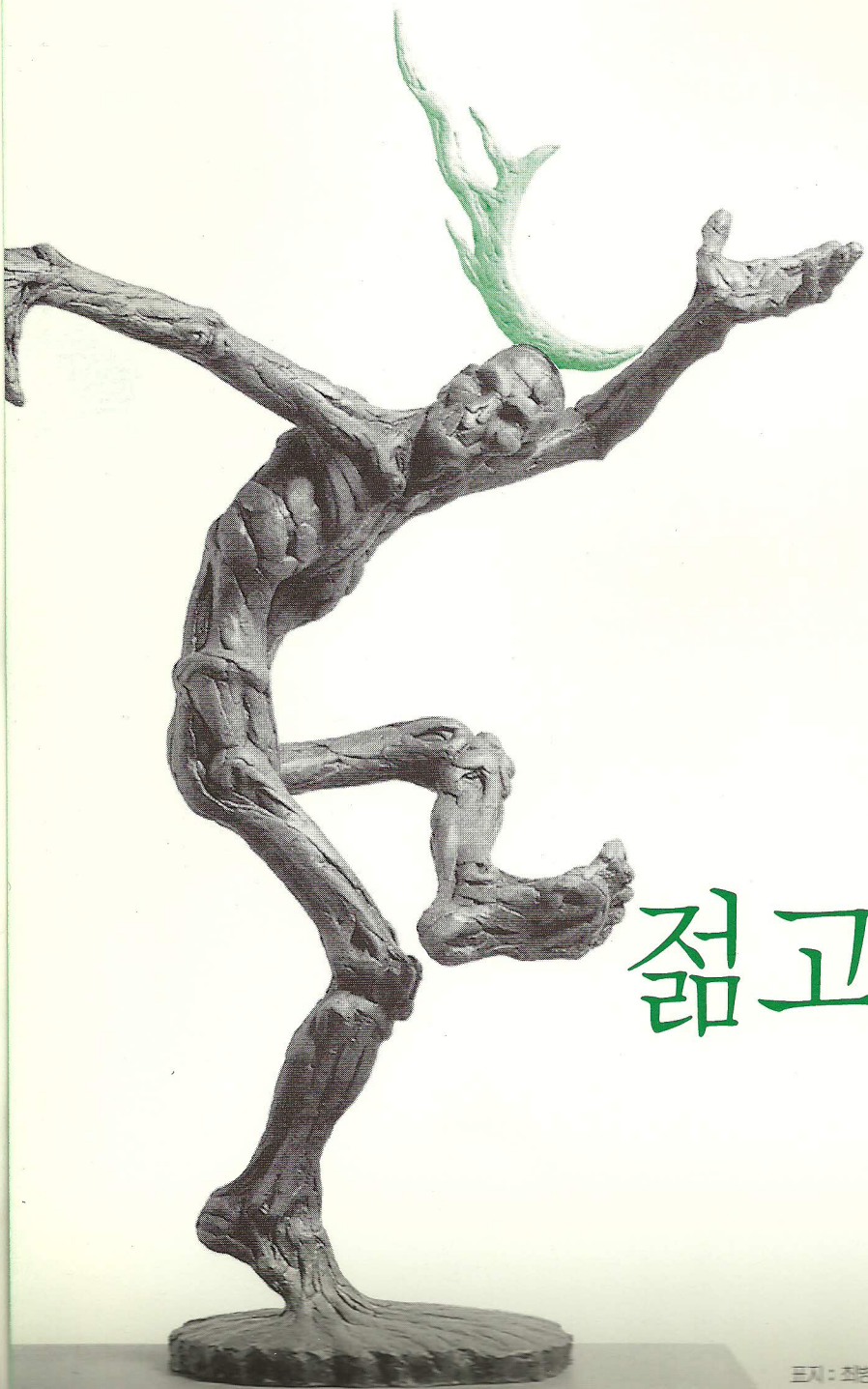


젊고 푸른 춤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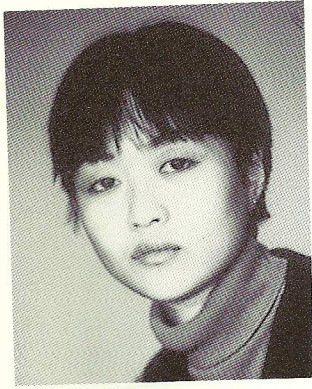
마리아의 고백

안무 : 황정례 (한국춤 / 부여대)
출연 : 황정례, 최정인, 권은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님이여.
나는 어디로 가나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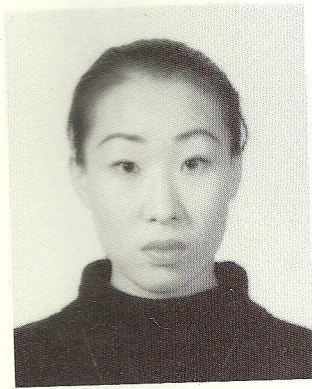
지금은 긴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눈물은 그대로 기도가 되네, 뺏속으로
 흐르는 선율이 되네.



소 귀에 경 읽기

안무 : 방영미 (현대춤 / 부여대)
 출연 : 방영미, 류은경, 김부인,
 김도경, 최후경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러
 명의 대화 속에서 서로 각자의 얘기만을
 고집하는 요즘 사람들의 고립된 인간상을
 나의 언어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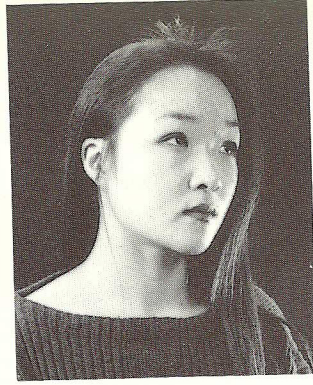


숨을 쉬고 싶다

안무 · 출연 : 서시영 (한국춤 / 경성대)

한마당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자연파괴, 환경
 오염, 질병 등으로 살아 숨쉬는 모든 생
 명체들이 병들고 있다.
 나도 병들고 너도 병들고,
 숨, 숨, 숨을 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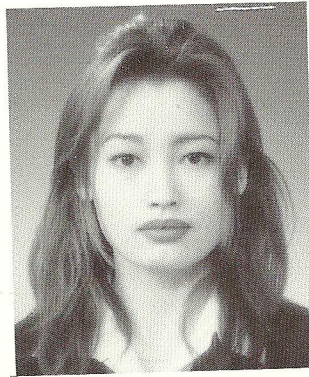
이카루스(IKARUS)

안무 · 출연 : 조운영 (현대춤 / 부산대)

그들은 그 옛적부터 지금까지 날아만 갔
 어. 그리고 우리를 불렀어.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슬픔에 잠긴 채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잊은건 아닐까.

날아가네, 날아가네, 저 하늘에 지친 이
 카루스.

날아가네, 저무는 하루의 안개속을.
 치솟는 이카루스의 그 조그만 틈새, 그
 자리가 혹시 내자리는 아닐는지.
 ... 만일 두 손이 날개가 될 수 있다면 ...



흰벽... 어두운 노래

안무 : 안성희 (한국춤 / 부여대)
 출연 : 안성희, 김윤선, 최정인, 정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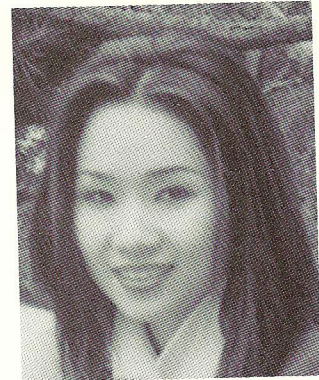
그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너도 환자, 나도 환자. 서로 마주보고 손
 가락질 하고 있는 환자, 환자.
 그러나 우린 그들을 정신병자라 한다.
 변명을 해도 그들은 환자로 찍히고 말았
 다.



남아있는 밤

안무 · 출연 : 김영숙 (한국춤 / 부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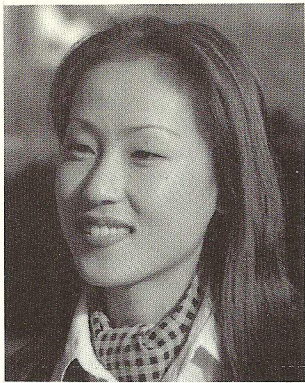
내 몸을 얹어 매는 것들.
 나의 욕심,
 나의 번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나를 맞이하기 위해
 나는 춤을 춘다.



그 후 50년

안무 : 이은정, 박소희 (한국춤 / 동아대)
 출연 : 이은정, 박소희, 신진욱,
 장은영, 김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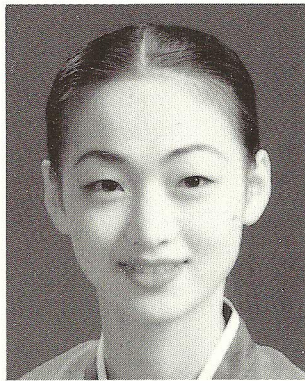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풍랑같은 세월을
 겪고 돌아본 지금 어느새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길을 조심스럽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3인무

안무 : 김영란 (현대춤 / 동아대)
출연 : 김영란, 김혜정, 김지연

세 무용수가 어우러져 극도의 불안, 초조 상태를 회화처럼 그려낸다.



언젠가 별을 보았다

안무·출연 : 허경미 (한국춤 / 부산대)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밤 적막속에서 별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별들은 문명 세계속에서 끝없는 욕망과 탐욕으로 발버둥치는 인간세계와는 무관하게 제 각자의 궤도에 따라 충실히 돌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우주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저 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살아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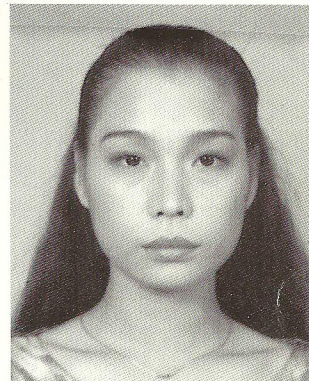
안무 : 김민 (한국춤 / 동아대)
출연 : 김민, 김기표, 김선희, 박진희, 장윤정

지금 내 모습은 무뎠직한 표정의 얼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애타게 그리워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냄새와 체온, 그리고 사랑...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제 2 부



눈 하나, 눈 둘

안무·출연 : 한영화 (한국춤 / 경성대)

남의 시각에 의해서 잘못 보여지고 의도적으로 모욕당한 한 인간의 모습 옆에서 방금 쓰러진 자를 잇게 하고, 경쟁적으로 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지배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 현대 정보나 진실에 대한 인간의 불감증과 사방이 닫혀 움짱달짝 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에서 모순과 갈등의 충돌을 스스로 해석하고 그 기형적인 모습들을 익살스런 표정과 풍자적인 몸짓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여자

안무·출연 : 심연숙, 박현숙
(발레/경성대)

여자의 창조, 간교한 뱀의 유혹, 여자의 선택 그리고 저주로 이어지는 "태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여자와 그 여자의 마음이 엮어내는 심리적 흐름을 통해 여자의 길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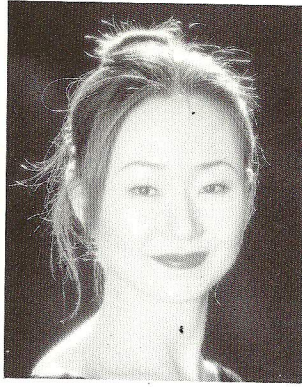


나는 그릴 수밖에 없었다

안무·출연 : 김경하 (현대춤/부여대)

여자들은 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간다. 하지만 결혼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에도 실패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패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왜 여자들에게 꿈꾸는 행복이란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가...

- 1장 - 붉은 언약
- 2장 - 불길한 예감
- 3장 - 벼랑 끝에 서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안무·출연 : 여지영 (한국춤/동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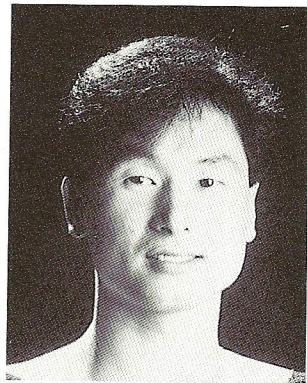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상을 나는 '어머니'에서 찾고 싶다. 그는 역사 속의 한 인물로서 나라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이름 높은 위정자도 아니요, 소설 속에 나오는 대단한 주인공 공도 아니다. 다만 목적의식 없이 홀로 자신을 희생하며 묵묵히 인고하고 얼룩진 삶을 수용하며 지나쳐 오셨던 내 어머니의 어머니...

모진 고난의 역사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해도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영원한 사랑의 봉우리, 어머니만은 변치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어머니, 아니 우리의 어머니, 그 뒷모습을 더듬어 보고 체념으로 젖어야 했던 그 영혼을 달래주고 싶다.

나의 춤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 1장 - 운명 속에서
- 2장 - 사랑하는 내 딸아
- 3장 - 어머니, 나의 어머니!



고요의 바다2

안무 : 김종덕 (한국춤/경성대)
출연 : 김종덕, 홍석기, 양운선, 김민주

아가들은 하얀 스폰지처럼 맑고 투명함을 준다.

혼탁한 빛깔의 물을 부어도 모두 흡수해 버린다.
하지만 아무리 어둡고 냉혹한 세상에 있더라도
따스한 온기는 존재하며 순수함은 아직 남아있다.
이런 현상을 일상적이고 정제된 동작으로 이미지 형상화 해본다.

이제 꿈을 심을만한 한 뼉의 땅조차 없다.
다만 심중의 바다에 이르러 평온함을 갖는다.
찾은 물결이 나의 온 몸을 부드럽게 휘 감듯이.

젊고 푸른 「고뇌」의 새봄맛이

채희완

(부산대 교수·춤 평론)

봄은 부산에 어디서부터 오는가 싶더니, 올해도 살펴볼 겨를없이 와도 봄값잡게, 왔으니 가나보다 할 참이었다. 민속의 고장 부산으로 칠 량이면, 그다지 멀지않은 예전만해도 동래나 수영이나 진나루에선 큰 줄도 당기고 마을용신굿도 올리고 탈마당도 벌였다. 또 낙동강 어귀나 다대포에선 뱃일잡이 풍물·소리 굿판이 벌어지고, 갯가에선 별신굿, 집집마다엔 지신 밧기, 매구굿이 한창이어서 한해 살림살이를 앞당겨 축원하느라 새삼 봄맛이 할 차비도 없이 새봄은 오는 줄 모르게 이미 와 있었다. 그런데 요사이 어느 그런가, 이른 봄을 다투어 춤신명에 난리굿이던 그런 정경을 옛 자취로만 떠올릴 뿐. 봄맛이는 커녕 봄이 와도 그만 하고 만다. 이러다 보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춤의 땅 부산에서 자라나 대물림받은 새내기 춤꾼 이라면 춤으로 새봄을 맞아 이로써 새날을 기약할 양다짐 한판이 없겠는가. 이를 부추겨 부산의 조그만 소극장에서 출판 한자리(3월 17~18일, 가람문화예술센터 소극장)가 벌어졌다.

올해 부산의 내게 대학 무용학과를 갓 졸업한 춤 전공자 여섯(김종덕, 여지영, 한영화, 김경하, 장오, 홍경민)이 헤쳐모여 올린 그 공연은 잎파리도 없이 꽃망울부터 소롯이 내민 봄들판의 들꽃 한다발처럼 푸르푸르한 봄의 기운을 풍겨주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신진춤꾼으로서 달래뿌리처럼 맵고 웅골찬 데도 있어 한때 피고지고 말 춤인생이 아님을 일러주었다. 사실 5, 6분짜리 소품으로 무엇을 말하라는 각기 다른 여섯 개 작품은 저마다 품고 있는 속말을 전달하려고 아낌없이 몸을 굴러 댄다. 때론 어눌하게 때론 거친 숨소리로 안맞는 용어사용에 서투른 문장구성일지라도 말보다 몸을 앞세우는 이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일단 귀를 기울여 보자. 「한줌 온기」조차 「인색한」 「생존 경쟁」의 「냉혹」한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접전」하고 「회전」하여 「면역인간」이 된 채, 「소외감」에 「지쳐」 그만 「눈을 감아 버릴까」, 「저려오는 나의 가슴」에 「슬픔」처럼 고이는 「그리움」. 이들이 하고픈 말을 나름대로 엮어보면 이렇다. 거친 세상풍파를 헤집고 살아야 할 사회초년생으로서 「애써 웃으며 감추」면서도 「뿌리치지 못하는」 싱싱한 「고뇌」가 있기에 이 출판은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 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 싶게도 미리 입맞추지 않았는데 「젊고 푸른 고뇌」가 공동주제가 되고 있기에 이 여섯 작품은 여섯 작품이면서 동시에 「한마당」이고 한 통속이다. 손가락

하나 상처가 나도 손 전체가 아프고 온 몸이 아프 다던가. 한 목소리로 내는 이들의 발언에 젊은 층은 공감하고 어른들은 언짢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성한다. 젊은 춤꾼들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가. 그 끝 모를 「젊은 고뇌」를 양산하는 체제의 한 켠에는 놓아 길러 제대로 춤출 춤꾼에게 「자신을 올바르게 가누지 못하면서도」 「강요」만 하는 대학 춤교육과 우리 춤 사회의 단면이 있다. 이들 고뇌의 중심에는 이런 어두운 구석이 도사리고 있다. 이 출판에서 그늘져 강파라진 몸짓은 이에 대한 거부 의 시늉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런 것조차 「말썽」이라면 이런 「말썽」은 피워 당연하다.

온상에 길들여진 우리 춤 풍토에서 비껴나간 들판의 이런 「말썽」 꾸러기야말로 어찌면 때서운 겨울 찬바람을 맞받아 피워낸 들꽃 꽃망울이 아닐런지. 풀죽은 부산의 춤내림 전통을 이제야 되살려 낼 들꽃들의 한마당, 「부산신인 춤제전」은 이런 연유로 해마다 이른 봄마다 열려 마땅하다. 화려하게 등장해야 할 신인춤용문이기엔 좀 초라할듯 또 어떠랴. 그래서 잊었던 봄이 어디서 오는지, 간 곳 없는 봄을 찾아 들판으로 갯가로 봄맛이 채비로 사람은 것처럼 살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새내기 춤꾼들도 칼날인양 내리 뺀친 손발로 이전 한웅큼 허공을 휘어 움켜쥐고 공기를 흔들어 새춤바람을 일으킬만한 하지 않는가. 웃통벗어 말끔한 상체에 굴곡있는 늑대(김종덕의 「겨울의 황혼」), 당차게 밀고가는 몸에 젖은 애살스러움(여지영의 「면역인간」), 좋은 춤집에 시원시원한 활개짓(한영화의 「회전목마」), 수다스런 일상사의 재치있는 유형화(김경하의 「엄마와 두아이」), 가녀린 어깨에 내려앉는 날카로운 열정(장오의 「그리움이 그리워질 때」), 물기어린 정감 속에 산뜻한 즉흥(홍경민의 「참으로 슬픈 내 모습이어」) 등이 돋보인다 해도 얹고 얹은 고뇌일 뿐, 지독한 참담함에서 나오는 숨은 폭발력을! 풀길없는 어두운 「고뇌」도 이 땅에 쌓인 한의 한오라기일뿐, 삶의 구비구비마다 부산춤 특유의 배김새 한자락으로 잡것은 꼭 배기고 우쭐 신명세계로 나서는 것이다.

땀과 풀고, 어르고 내달아, 두텁게 때로는 여러개 굴곡진 긴장과 이완의 흐름이야말로 우리춤의 내용과 형식원리이니까. 또 그게 삶의 깊숙함이니까.

(「춤」誌 95년 4월호)

